

초여름 청량한 몽돌 구르는 소리 들으며 걷는 보길도여행

- * 여행기간 : 2016년 6월 11일(토)~12일(일) (1박2일)
- * 여행장소 : 전라남도 - 완도군 보길도
- * 참가인원 : 15~30명내외 (선착순모집. 15명 미만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.)
- * 교통편 : 참가 인원예 따라 미니버스 또는 대형버스
- * 참가비 : 1인 239,000원

일정

1일차 윤선도가 본가에 들어가지 않고 머물고자 했던 아름다운 섬, 보길도

서울 지하철3호선 양재역 출발 (아침07시30분, 12번 출구 전방100m)

- * 전남 강진 병영면에서 점심식사 - 석쇠구이 불고기가 맛있는 남도 최고의 백반집

해남 땅끝마을 선착장 또는 완도 화흥포항에서 배타고 노화도로 이동

- * 보길도 탐방지1 - 윤선도의 보길도 터전, 부용동 세연정 (시간되면 옥소대까지 등산)
- * 보길도 탐방지 2 - 산중턱에 만든 윤선도의 신선놀이 터전, 동천석실
- * 보길도 탐방지 3 - 섬 끝자락에 펼쳐진 거대한 갯돌의 향연, 공룡알해변
- * 싱싱한 회와 매운탕으로 저녁식사

보길도 민박 또는 여관 또는 펜션 숙박 (숙소형태와 가족참가인지 혼자참가인지에 따라 가족실
배정과 남, 녀 분리하여 다인실 숙박을 혼합함)

2일차 보길도의 역사와 자연을 담고 푸른비 내리는 녹우당까지

- * 보길도 탐방지4 - 이른 아침, 종리 해수욕장 해송숲과 해변 산책 (해수욕도 가능)
- * 보길도 탐방지5 - 유배 가는 송시열의 애틋한 심정이 남겨진 곳, 송시열 글써바위
- * 보길도 탐방지 6 - 예송리 검은몽돌 해수욕장에서 파도가 연주하는 자갈소리 듣고 발담그기, 천연기념물
방풍림 걷기

노화도에서 배타고 해남 땅끝으로 이동

- * 남도 제 1 명문가 - 해남 윤씨 녹우당 탐방 (윤선도 본가)

해남 출발 → 양재역 도착 (밤 9 시 도착 예상)

※ 기상악화, 도로사정,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발생할 시, 일정이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도
있으며 교통상황에 따라 도착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.